



복음기도신문은 복음과 기도의  
증인들의 믿음의 고백과 열방의  
뉴스를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해석해 성도를 일깨우고 열방의  
중보기도자로 세우기 위해 격주  
로 발행되는 신문입니다.

# 복음기도신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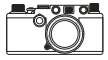


한국어판 [www.gnpnews.org](http://www.gnpnews.org)  
 영어판 [english.gnpnews.org](http://english.gnpnews.org)  
 일어판 [japan.gnpnews.org](http://japan.gnpnews.org)  
 중어판 [china.gnpnews.org](http://china.gnpnews.org)

2010. 10. 3 창간

Gospel Prayer Newspaper

2022. 2. 13 ~ 2022. 3. 5 제261호



포토에세이



▲ 케냐의 아이들. 제공: WMM

## 기쁨을 맛보고 싶은가?

케냐에 있는 한 학교. 한 여  
자아이가 카메라를 향해 환  
하게 웃으며 포즈를 취한다.  
하얀 블라우스에 검정색 치  
마 교복을 입고 집을 나서면  
서 무슨 생각을 하며 학교에  
갈까? ‘오늘은 무슨 신나는  
일이 있을까?’ ‘어제 했던 계  
임을 오늘 마저 해야지.’ 생  
기발랄한 아이들이 모인 학  
교는 기쁨과 생동감으로 가

득하다. 누구에게도 빼앗기  
지 않을 것 같은 기쁨이 교실  
곳곳에 피어난다.  
다웠든 주께서 마음에 두  
신 기쁨이 있다고 했다. 그것  
은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  
할 때보다 더했다. 영혼을 만  
족시키는 진정한 기쁨이었  
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얻  
어지는 게 아니었다. 그 기  
쁨, 맛보고 싶은가? 소망 없

는 나 같은 죄인을 속량하시  
 그의 피로 살리신 예수 그리  
스도께로 나와 보라! 영원한  
기쁨을 맛 볼 것이다.  
“여호와와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  
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  
플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이사야 35:10) [GPNEWS]

## 차별금지법 존재하는 핀란드, 성경 따르는 국회의원 기소

차별금지법과 비슷한 혐오  
표현금지법이 존재하는 핀  
란드에서 국회의원 파이비  
라사넨이 3가지 혐의로 기  
소됐다고 크리스천포스트  
가 지난 1월 말 전했다.

혐오표현금지법 위반으  
로 지목된 첫 번째 혐의는  
2019년에 그녀가 속한 핀  
란드 복음주의 루터교회  
가 헬싱키의 동성애자 프라  
이드 페레이드에 협력하기  
로 한 결정에 의문을 제기  
한 트윗에 관한 것으로, 로  
마서 1:24-27의 내용이 포  
함되어 있었다. 그녀는 경  
찰에게 기독교 신앙에 대해  
질문을 받았고, 성경이 무  
엇을 가르쳤는지, 이 트윗  
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조사  
를 받았다.

또한 라사넨은 2019년의  
트윗 외에도 2019년 라디  
오에서 한 동성애에 대한  
발언과 2004년 그녀가 쓴  
“하나님이 창조한 남자와  
여성 : 동성애는 인간에 대  
한 기독교적 관점에 도전  
한다.”라는 성에 대한 교회  
의 가르침을 선포하게 담은  
소책자로 인해서 기소됐다.  
또한 2004년 책자를 출판  
한 루터교단 주교도 인종적

선동 혐의로 기소됐다.

핀란드 정부는 이 사건이  
라사넨의 성경 사용이나 기  
독교 신앙에 관한 것이 아  
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정의  
상황은 달랐다. 라사넨의 변  
호사에 따르면, 검사측은 이  
사건이 기독교와 관련된 사  
건이 아니라고 밝혔지만, 검  
사는 이 사건이 성경, 그녀  
의 믿음, 기독교에 대한 것  
으로 몰아갔으며, 법원에서  
구약의 성경구절을 읽는 것  
으로 재판이 시작됐다. 라사  
넨의 변호사는 이날 법정  
에서 전개된 상황을 볼 때, 이  
사건은 성경의 가르침과 법  
률의 충돌이라는 것에 의문  
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미국 플로리다주의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을  
비롯한 공화당 상원의원 4  
명은 미국 정부의 국제종교  
자유대사에게 서한을 보내  
핀란드 정부에 라사넨과 포  
홀라 주교 사건에 대한 우  
려를 표명할 것을 촉구했  
다. 상원의원들은 서한에서  
“핀란드 법이 세속적인 신  
성모독법과 다를 바 없다.  
이것은 세속적인 경향과 상  
충될 수 있는 종교적 신념  
을 공개적으로 진술한 다른

독실한 기독교인, 무슬림,  
유대인과 다른 종교의 추종  
자들을 기소할 수 있는 문  
을 열 수 있다.”고 밝혔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 핀  
란드에서 지나치게 광범위  
한 혐오표현법 때문에 기  
독교인들이 성경적 진리를 말  
할 수 없는 위기에 처했다.  
그러나 다른 정부들과 마찬  
가지로 핀란드 정부도 인간  
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혐오 표  
현’을 규제할 자격이 없다.  
정부는 어떤 종교적 신념이  
공격적이거나 범죄적이  
라고 결정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이번 사건은 라사  
넨 개인을 넘는 훨씬 더 큰  
사건이다. 핀란드 국민과 세  
계 곳곳의 사람들을 위한 인  
간의 기본적 권리 보호에 관  
한 것이 달려 있다. 라사넨  
은 “종교적 신념의 목소리  
를 내는 것이 투옥을 의미  
할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 나는 내 신앙 고백  
권을 지켜서 다른 누구도 종  
교와 언론의 자유를 박탈당  
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  
하고 있다. 성도들의 믿음의  
행진이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GPNEWS]



마음의 눈을 밝히사 (45)

## 왜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할까요?

가인과 아벨은 아담과 하와  
가 범죄 한 후 에덴동산에서  
쫓겨나와 낳은 자식들입니  
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구원의 길을  
계시해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사 제도였습니다. 의  
롭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갈 때 죄를 가지고 나  
가면 반드시 심판을 받을 수  
밖에 없기에, 그 심판에 대  
한 대책으로 허락해주신 것  
입니다. 오늘날 남북이 군사  
분계선을 넘어 유일하게 합

법적으로 만날 수 있는 장  
소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JSA)인 것과 같습니다.  
그 제사로 가인과 아벨 두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갔습  
니다. 가인은 농사하는 사람  
이라 농산물을 바쳤고 아벨  
은 양을 치는 사람이라 양  
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하나  
님은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  
지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  
으셨습니다. 어떤 기준일까  
요? 히브리서에 그 답이 나  
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

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  
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  
나...”(히브리서 11:4)  
성경은 아벨이 하나님께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고,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그  
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  
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농사  
꾼이 농산물을 드리고 목자  
가 양을 드리는 것이 마땅하  
다고 보지 않으셨습니다. 하  
나님이 요구하시는 예물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피 흘림의 예물입니다. 생명  
의 희생이 없이는 결코 하나

님이 받으실 수 없다는 것입  
니다. 죄의 문제는 분명히 생  
명과 관계되어 있고,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그래서 피 흘  
림, 곧 생명의 희생이 없이는  
결코 사함이 없고, 죄에 대  
한 사함이 없으면 의가 이루  
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가  
인은 믿음 없이 자기 생각대  
로, 자기 최선으로 드린 것입  
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가인  
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 십자  
가의 도에 ‘의(義)’와 ‘믿음’과  
‘피 흘림’의 요소가 충족되어  
야만 완전한 구원이 될 것이



일러스트=김경선

라고 계시해주셨습니다. 십  
자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자기 자신을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린  
제사입니다. 그리스도의 보  
혈, 그분의 ‘피 흘림’으로 하  
나님께 나아가갈 길을 얻으며,  
오직 이 사실을 ‘믿음’으로  
‘의롭다하심’을 얻는 구원이  
바로 복음입니다. [GPNEWS]  
복음을 영화롭게 하라  
(김용의.규장.2017)에서 발췌



복음의 소리  
316전화

복음이 뭔지  
궁금하신가요?

믿음으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연락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해답이 있습니다.

운영시간 10~22시  
상담시간 40분



장난 전화는 삼가주세요

1670-3160

# 베네수엘라, 하루하루 연명하는 국민들

[통신원 리포트] 한 달 보조금으로 설탕 1kg 구입하면 '끝'



▲ 베네수엘라의 경제기반이 무너지며 마트에 물품이 공급되지 않고 있다. 2016년 촬영. 출처: eutimes 캡처

[베네수엘라 현지 통신원] 사회주의 정책으로 정상적인 국가 운영체제가 무너진 베네수엘라 국민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은 가질 수도 없으며,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루하루 연명하고 있다.

현지 베네수엘라 통신원에 따르면, 현재 대부분의 베네수엘라 가정은 모든 면에서 정부 결정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며, 미래에 대한 아무런 희망도 갖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

전문인으로 일하다 은퇴한 이달고(가명)는 “현재 주정부에서 받는 수당은 한 달에 7볼리바르(한화 약 1800원)에 불과하며 이는 1kg의 설탕 구입비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5명의 가족이 있는 올란도(가명)는 “한 사람의 월평균 급여가 5달러 정도이며, 6인 가족의 기본 급여

는 350달러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가족 중 한 명 정도는 돈을 벌기 위해 다른 나라로 떠나야만 하는 상황이다. 이 같은 현실에서 “베네수엘라 국민이 경제적으로 버틸 수도 없으며 구매력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이며 “베네수엘라가 석유 잠재력이 있는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남미에서 가장 가난한 국가로 전락했으며, 현재 극심한 빈곤에 놓여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그는 “지난 수년 동안 꿈과 목표를 위해 싸웠지만, 많은 사람들이 잔혹한 현실에 좌절하며 베네수엘라의 가족과 집 등 모든 것을 버리고 다른 나라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 떠나고 있다.”고 말했다.

올란도는 “마두로 대통령은 이웃 나라 쿠바를 목표로 통치하며, 민주주의를 거론하지만 모두 거짓말”이라면서 “마두로 정부가 자본

주의적 모델을 말하며 사회주의와 민주주의를 주장하지만 이들에 의한 통치는 변장한 민주주의일 뿐이며 사실상 최악의 권력집단”이라고 혹평했다. 이러한 상황에도 정권이 바뀌지 않고 지속되는 것은 대통령을 비롯한 소수의 사람들이 군부 세력을 매수하고 선거권을 조작할 수 있을 정도로 사법부를 통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그는 주장했다. 이에 따라 과거에 입법, 행정, 사법부가 독립적으로 권한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제는 대통령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되어 독재 권력으로 변질됐다는 것이다.

일반 국민들은 의약품과 음식 부족 등 빈곤과 사투를 벌이고 있는데 반해 권력자들은 엄청난 저택과 호화로운 시설을 마음껏 누리고 있다. 기독교인인 이달고는 “분열된 베네수엘라 교회는 대부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말한다. 이는 기독교인의 70%가 정부 보조금에 의존하며, 이러한 혜택을 놓지 않으려고 전전긍긍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그는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베네수엘라 성도들이 참된 복음에 눈을 뜨고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라며 “베네수엘라 성도들이 진정한 복음의 삶에 열망할 수 있도록 한국 교회에 기도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GPNEWS]

## 베네수엘라 국민, 정부 보조금 기대하며 침묵 선택

기독교인들, “복음의 증인과 희망을 주는 새로운 지도자 위해 기도”

다음은 2022년 2월 초 현재 현지 통신원이 전해온 베네수엘라 현지 상황이다. <편집자>

베네수엘라 가정은 매일 일상에서 정부 결정에 의존하고 있으며 미래지향적인 전망 없이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다. 베네수엘라를 위해 미국이 재정을 지원할 수는 없겠지만, 미국이 개입한다면 현재와 같은 초인플레이션은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

나는 전문분야에서 일을 하다가 은퇴했다. 현재 내가 주정부에서 받는 보조금은 한 달에 7볼리바르, 미화로 1달러 30센트(한화로 약 1800원)에 불과하다. 이는 1kg의 설탕을 구입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다.

베네수엘라 국민들이 집을 구입하려고 해도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현금이 있으면, 쉽게 주택을 구입하면 된다. 그러나 그럴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 융자 등의 재정지원을 받으려면 주택 및 거주지를 위한 국민권력부와 연결되는 베네수엘라주거회의(AVV)와

같은 정부 기관을 통해 집단모임에 참여해야 한다. 이때 당의 정치 프로그램 전체 그룹에 참여해야만 한다. 이렇게도 저렇게도 할 수 없는 사람은 국가 소유의 토지에 허가받지 않고 그냥 불법으로 살아가는 수밖에 없다.

이러한 현실에 대해 베네수엘라 국민들이 갖고 있는 마두로 정부에 대한 견해는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별다른 의견을 내지 않고 현 체제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둘째는 과반수에 해당하는 동의하지 않는 경우인데 이들 중 다수는 선거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셋째는 마두리스타, 차비스타라고 불리는 마두로 대통령과 전임 대통령인 차베스 추종자와 지지자들이다. 이들은 대부분 현 정권에 충성하는 부류들이다.

현재 베네수엘라 국민들은 노동계약으로 강요를 받으며, 음식, 장난감, 학용품, 건강, 주택 등과 모든 것을 구입할 때도 사회프로그램을 통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속으로는 마두로 정부에 대해 동

의하지 않고 있지만, 일상의 삶에 대한 두려움으로 침묵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현실에 대해 교회와 기독교인들은 대부분 침묵하고 있다. 이는 교회가 분열돼 있으며, 서로 입장이 다르기 때문이다. 베네수엘라 신자의 70%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때문에 정부가 제공하는 적은 혜택이라도 잃지 않으려면 정부를 지지해야 한다. 나머지 30%는 침묵을 택한다. 이는 목회자들이나 일반 평신도 모두 비슷하다.

이러한 베네수엘라의 회복을 위해 한국교회에 기도를 요청한다. 베네수엘라 교회가 흥미로운 복음이 아니라 참된 복음, 즉 진리를 선포하는 복음의 증인들이 나타나야 한다. 또한 변화에 대한 희망을 불어넣어 주고 나라를 하나로 묶는 새로운 지도자가 필요하다. 구체적인 기도제목으로는 성경의 복음이 이 땅에 전파되고, 국민들의 행동을 억누르고 있는 극심한 인플레이션이 통제되는 것이다. [GPNEWS]

## 오늘의 열방 다이제스트

긴급한 열방의 상황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열방의 교회, 다음세대, 창결하는 죄, 이주민 문제, 영적 전쟁 등의 관점에서 전 세계 언론과 통신원들을 통해 모아진 열방의 소식을 요약, 정리해서 제공합니다. <편집자>

### 탈레반 집권 후 아프간 언론사 318곳 폐업... 언론사 59% 붕괴

작년 8월 탈레반 집권 후부터 지금까지 아프가니스탄에서 318개 이상의 언론사가 폐업했다고 아프간 톨로뉴스가 최근 보도했다. 국제기자연맹(IFJ)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8월 초까지 아프간 전역에서 활동한 언론사는 543개로, 6개월 사이에 기존 언론사 중 59% 가량이 무너졌다.

새 언론 규정을 만들어 이슬람에 반하는 보도를 금지하고 언론인과 여성들을 탄압하는 탈레반 정권을 공화히 여겨주십시오. 통치 능력이 없는 무능과 잘못된 신념과 신앙을 인정하고 창조주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겸손한 심령을 주시고, 악인의 통치 아래 고통 받는 아프간 영혼들이 속히 자유를 얻게 해주십시오.

### 中, 코로나 방역 이유로 국경 장벽 건설... 탈북민 탈출 루트 막혀

중국에서 5000km에 이르는 대규모 국경 장벽이 남쪽에 세워지고 있다고 최근 월스트리트저널 중문판이 전했다. 중국 당국은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미얀마와 베트남 국경을 맞대고 있는 지역에 철조망, 감시카메라, 센서 등이 부착된 철제 장벽을 설치했다. 이 국경은 위구르인 등의 난민들과 중국을 거쳐 다른 나라로 가려는 탈북민들의 루트 중 하나로 알려졌다.

공산당을 중심으로 종교를 탄압하고 개인 정보를 감시하며, 급기야는 국경까지 철저히 차단하는 중국의 죄성과 아집을 허물어 주십시오. 이 길을 통과해야 하는 난민들과 탈북민들의 길을 열어주시고, 가장 높고 견고한 자아의 담을 허물어 십자가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참 자유를 중국에 허락해 주십시오.

### 언론회, “여가부, 강한 페미니즘으로 국민 평가하기 조직으로 전략”

한국교회언론회가 논평을 통해 여성가족부(여가부)가 강한 페미니즘으로 국민들을 ‘평가하기’ 하는 조직이 되었다며, 신속히 새로운 쇄신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언론회는 여가부가 가족의 소중함과 자녀 양육의 소중함을 이성한 선동으로 만들어 갔다며 2021년 ‘독박육아’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등 선동적인 비속어로 가정과 가족의 소중함을 해치면서, 편향된 이념과 ‘젠더’를 통해 강한 페미니즘을 실현하고 국민들을 평가하기 하는 조직이 됐다고 지적했다.

여가부가 외치는 성평등이나 여성 인권의 신장은 인간을 존귀하게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명하신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 세상의 지도자들이 겸허한 마음으로 주어진 자리에서 섬김의 지혜를 갖게 해주십시오. [GPNEWS]

## 느헤미야52기도 참여교회 및 단체

2022년 2월 14일 ~ 2022년 3월 5일

**2월 14일 ~ 2월 19일** 2.14(10~18시) ▶경기 김포 / 꿈꾸는교회(강\*\*) 010-4128-0448, 2.14~18(11~17시) ▶경기 군포 / 예수생명교회(권\*\*)010-2735-4869, 2.15~18(14~16시) ▶경기 광주 / 창대교회(김\*\*)010-4715-3727, 2.16(0~24시) ▶제주 조천 / 함덕제일교회(박\*\*)010-5002-2046, 2.18(10시)~19(10시) ▶서울 광진 / 한국중앙교회(김\*\*)010-4013-5346, 2.19(11~13시) ▶경남 김해 / 진영소망교회(조\*\*)010-5417-9933, 그 외 3교회 진행중.

**2월 21일 ~ 2월 26일** ▶경남 통영 / 두미교회(이\*\*)010-4734-8567, 2.21~25(10~17시) ▶강원 속초 / 동명교회(김\*\*)010-7423-4953, 2.21~26(06~24시) ▶경기 광주 / 문광교회(최\*\*)010-3380-5781, 2.22(11~13시) ▶경기 수원 / 주님의교회(조\*\*)010-5417-9933, 2.22,24~26(19~22시) ▶전남 신안 / 중부교회(강\*\*)010-5186-0091, 2.24(0~24시) ▶울산 북구 / 우정교회(박\*\*)010-8308-4628, 2.25(13~16시) ▶전남 순천 / 우리동네작은교회(강\*\*)010-7129-7224, 2.25(0시)~26(24시) ▶대전 서구 / 광야아들공동체(정\*\*)010-3697-0641, 2.25(18시)~26(18시) ▶전북 전주 / 주소망교회(최\*\*)010-4661-4039, 그 외 3교회 진행중.

**2월 28일 ~ 3월 5일** ▶전남 신안 / 열방선교센터(강\*\*)010-7364-9982, 2.28(10~18시) ▶경기 김포 / 꿈꾸는교회(강\*\*)010-4128-0448, 2.28~3.4(10~16시) ▶경기 부천 / 어울림교회(박\*\*)010-2664-2664, 2.28~3.4(11~17시) ▶경기 군포 / 예수생명교회(권\*\*)010-2735-4869, 3.1,3~5(19~22시) ▶전남 신안 / 중부교회(강\*\*)010-5186-0091, 그 외 3교회 진행중.

\* 더 많은 정보는 기도24365홈페이지(www.prayer24365.org)를 참고해주세요. 느헤미야52기도에 함께 하기를 원하는 분은 사전에 연락하시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느헤미야52기도 문의 ☎ 010-8267-4365)

기획 | 아동학대

# 행정편의주의에 따른 아동학대 정책, 심각한 가정파괴와 아동인권침해 초래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확대된 아동학대 사안에 대한 정부 대처가 선부른 행정기관과 아동보호단체들의 개입으로 예기치 않은 가정파괴와 또 다른 아동인권 침해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원가정인권보호연대가 지난달 21일 주최한 ‘강제 분리로 인한 아동인권침해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의 포럼에서 참석자들은 정부의 잘못된 학대아동 대처로 예상치 않은 아동인권 침해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김정희 대표(전국청년연합바로사)는 “2020년 10월 충격적인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학대아동보호와 아동인권에 대한 법과 정책이 너무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서 정부의 행정편의주의와 관련기관의 감독 소홀 등으로 심각한 후유증을 낳고 있다.”고 말했다. 그 사례로 “층간 소음으로 분쟁이 있던 이웃의 거짓 신고로 자녀가 아동보호전문기관에 강제로 분리되거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문서를 과장, 위조해 법원에 제출하는 등의 사건이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잇따르고 있다.”고 김 대표는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 대표는 “국가기관이 아닌 수익을 추구하는 민간기업인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한 아동당 지급된 정부 지원금을 바라고 학대아동에 대한 충분한 심사 없이 아동들을 부모와 강제 분리하는 사례도 있다.”며 국내 학대아동에 관한 정책의 허점이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책정한 지원금은 가정위탁의 경우, 아동 한 명당 66만 원에서 양육시설은 166만 원이다.

현재 국내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 사건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과 아동복지법에 따라 신고 접수 이후, 경찰관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현장 출동을 통해 처리된다. 이때 아동과 원가정을 분리할 정도의 결정은 보호자의 죄질이 무거운 아동학대가 있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이뤄져야 한다.

정훈태 변호사는 그러나 “현재 아동의 진술만으로 아동학대를 판단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동의 진술은 과장하는 경우가 많고 신빙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경미한 아동학대인데도 아동이 장기간 분리되어 그 이후 아동이 가정에 복귀를 거부하거나 가정에 적응하지 못하는 등 불합리한 아동분리로 인해 선의의 피해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선미 변호사(인권수호변호사회 대표)는 “수차례에 걸친 부부싸움

으로 출동한 수사관이 무리하게 이 가정의 아동을 학대아동으로 만들어, 의사표현이 불가능한 발달장애 치료를 받던 만 38개월의 남자아이와 만 13개월의 여자아이를 보호시설로 보냈다.”며 “피해아동들은 그 이후 보호시설에서 분리불안장애 증상을 보였다.”고 밝혔다.

### 신고된 아동학대의 판정 결과... 미국은 신고건수의 8.3%, 한국은 72.7%

이러한 학대아동에 대한 대처는 아동학대 근절과 예방이라는 절대적인 목표를 위해 정부가 충분한 연구와 검토 없이 우리나라보다는 훨씬 이전부터 시작됐지만,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되며 채 걸리지 않은 미국의 아동보호 제도를 그대로 가져온 결과라는 지적도 있다.

미국과 한국의 아동학대와 자녀 훈육권과 징계권을 비교한 넬슨 앨런 & 넬슨 록키(나는부모다협회) 국제이사는 “미국의 아동학대 신고율은 매우 높지만, 실제로 학대로 판정되는 아동은 8.3%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미국보다 9배가량 높은 72.7%가 학대받고 있다고 판정된다.”며 한국의 학대아동에 대한 판정이 지나치게 높아 걱정하게 판정됐는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즉 미국은 아주 급박한 위험에 처해있지 않다면 아동의 강제 분리가 강행되지 않지만, 한국은 학대아동으로 신고가 접수되면 무조건 강제 분리를 실행해, 아동들이 낯선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2차 정서적 학대를 받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는 것이다. 또 미국의 경우, 아동학대에 대한 허위보고의 경우, 5년 정도의 징역과 최대 1만 달러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해 허위보고에 따른 선의의 피해자 발생을 막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기도 했다.

넬슨 이사는 또 “현재 미국은 부모의 훈육권을 인정하며 적당하고 적절한 훈육은 학대로 보지 않지만, 2021년 자녀징계권을 법으로 삭제한 한국에서는 ‘핸드폰 그만해야지’ ‘학원 가야지’라는 부모의 잔소리조차 아동이 느끼기에 학대라고 생각된다면 정서적 학대로 판단되는 상황”이라며 광범위한 용어 사용으로 부모의 권위와 자리가 오히려 위태로워지는 상태라고 말했다.

학대아동을 판단하는 절차에서도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뤄지는 아동보호제도 및 강제 분리는 미국에 비해 경직되어 있고 지나치게 행정편의주의를 따르고 있다는 지적이다.

넬슨 이사는 “미국은 아동의 시설입소보다는 가족과 친인척 위

탁에 더 비중을 두고 아동이 가정과 유사하고 비슷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장려하며, 부모 중 한 사람이 아동의 분리조치를 원하지 않는 경우, 사회복지사가 범원명령을 받지 않는 한 자녀를 분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나 아동복지사의 결정에 따라, 부모는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한 채 자녀를 국가가 지정된 시설로 보내야 하는 실정이다.

실제로 나는부모다협회 김수빈 회장은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들이 ‘부모 준비가 안되어 보인다’, ‘아동학대를 할 것 같다’는 등의 주관적인 견해만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아보전)에 아이를 빼앗기는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런 사례를 통해 “아보전으로 분리된 아동들이 분리되기 전보다 심한 충격을 받고, 집에



▲ 지난 1월 21일 열린 2022 원가정 아동인권 포럼. 출처: 원가정인권보호연대

돌아온 뒤에도 오랫동안 공포감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며 학습장애, 심각한 우울증 등 심리문제, 정서장애, 사회 부적응 등의 현상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우리나라 학대아동에 대한 정부의 대처가 아동 강제납치와 같은 인권침해 사례로 이어지고 있다고 주요 썬 원가정인권보호연대 및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공동대표는 말한다.

주 대표는 “우리나라 아동학대 혐의자 및 아동에 대한 처리가 매우 작위적이고 주먹구구이며 부모들이 최소한 방어수단으로 알고 있어야 할 정보를 알려주는 ‘미란다원칙’이 무시’되는 것은 물론

“아동학대 허위신고에 대해 엄격한 법적 제재와 유죄 판결시 징역형과 벌금형까지 부과하는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신고자에 대해 비밀주의로 일관해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효관(원가정인권보호연대 및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대표는 “열 명의 범죄자를 잡지 못해도 한 명의 억울한 피해자는 만들지 말라는 형사원칙의 기초가 있다.”며 “대중의 여론이나 법 감정이 앞서 아동과 부모에게 평생의 상처가 될 강제 분리 및 인권 침해 보호조치로 인한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GPNEWS]

## 아동학대 처리, 한국과 미국 어떻게 다른가

\* 가정내 훈육권과 자녀징계= 우리나라의 경우, 2021년 법적으로 부모의 자녀징계권이 삭제됐다. 보호자의 책무를 규정한 아동복지법 제5조에 따르면,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의 정서적 고통을 가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부모가 “핸드폰 그만해야지.” “학원 가야지.” 등 부모가 할 수 있는 작은 잔소리도 아동이 느끼기에 학대라고 생각이 들었다면 정서적 학대로 판단할 수 있는 위험한 기준이다.

그러나 미국의 전 50개 주에서 부모의 훈육권이 인정되며, 적당하고 적절한 훈육은 학대로 보지 않는다. 미국에서도 처벌권(자녀징계권)을 없애자고 단체들이 주장했으나, 많은 부모들의 반발과 항의로 이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미국에서 2004년 실시한 일 반사회조사에서 미국 성인의 71%가 자녀에게 때때로 ‘선의의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조사됐다. 이처럼 미국에서 아동학대를 근절하고 예방하되 가정과 개인의 존엄성을 인정하고 국민 개개인의 자녀 양육 방식과 자녀징계 결정권을 부모에게 부여해 정부가 과도하

게 개입하지 않고 있다.

\* 아동학대 판정 및 분리조치= 미국은 아동학대 신고율이 매우 높다. 그러나 이러한 신고 이후 아동학대로 판정되는 사례와 분리조치 비율은 한국에 비해 현저히 낮다. 그 이유로 미국의 아동학대 판정은 전담요원들의 철저하고 심도 높은 ‘조사’ 때문이다. 전담요원은 방문 당시의 집안 환경과 아동, 그 부모와 면담을 진행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해당 아동의 학교 선생님이나 이웃과도 면담한다. 해당 아동 가족이 종교가 있다면 교회 목회자 등의 진술을 비롯 다양한 사항들을 수집, 종합해서 판단한다.

2019년 미 보건복지부의 아동학대 통계자료에 따르면, 한 해 동안 437만 8000건의 신고전화 가 있었고, 이 신고에 연관된 아동은 형제 자매를 포함해 788만 400명에 이른다. 그중 45.5%의 신고는 조사 자체를 받지 않았으며, 신고 건수의 54.5%는 조사 또는 응급조치 등을 받았다. 결국 약 790만 명의 아이들 중 실제로 아동학대에 해당되는 아동은 약 8.3%인 65만 6000명으로 집계됐다. 그중 19만 9737명의 아동이 분리됐다. 결과적으로 약 790만 명의 아동 중 2.5%

의 아동이 분리조치 된 셈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2020년 보건복지부의 아동학대 주요통계에서 발췌한 내용에 따르면, 한 해 동안 4만 2521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이중 아동학대로 판단한 건수는 3만 905건으로 약 72.7%에 달한다. 미국의 학대판단율은 신고 건수의 8.3%인 반면, 우리나라는 단순 비교를 해 보면 무려 9배가량이나 높다.

그러나 이를 총인구에 대비해 볼 때, 미국에서 아동학대 사건으로 분리된 아동은 3억 3000만 명에 달하며 전 미국인 가운데 0.067%에 달한다. 반면 5187만 명의 인구를 보유한 한국에 분리된 아동은 0.059%에 달해 비슷한 수준이다.

\* 아동보호서비스 및 강제 분리 절차= 정인이 사건 이후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정부와 국민들의 강력한 법적조치에 대한 기대심리에 따라, 우리나라의 학대아동에 대한 강제 분리는 미국에 비해 상당히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다. 미국에서 ‘불법’으로 단정지을 수 있는 형태의 아동 강제 분리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버젓이 일어나고 있는 셈이다. [GPNEWS]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 복음기도신문(gpnnews.org)을 참조해주세요.)

기획 | 창조 이야기 (67)

# 진화론, 인류를 감소시키려는 사탄의 도구

본지는 창조론 전문가인 미국 켄트 호빈드 박사의 창조론 강의를 요약, 소개한다. 호빈드 박사의 강의는 성경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흥미롭게 설명하며, 진화론이 거짓 믿음 체계임을 명쾌하게 밝히고 있다. <편집자>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진화론이 얼마나 명청할 뿐 아니라 왜 위험한지 아는가? 나는 수년 동안 과학을 가르쳐 왔고, 과학을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교과서에는 오래된 독이 섞여 있다. 진화론은 오직 거짓말에만 기초를 두고 있다. 사탄은 거짓의 아버지이다. 진화론은 모든 도덕성을 제거하고, 도덕성을 찾을 수 있는 방법도 제거한다. 그것이 인본주의, 인종주의, 나치주의, 공산주의와 신세계 질서의 기본이 된다. 진화론이 위험한 것은 그것이 거짓말에만 기초를 두고 있을 뿐 아니라 모든 도덕성을 제거하기 때문이다. 영국의 생물학자 토머스 헨리 헉슬리는 “우리가 종의 기원에 대해 좋아서 펄쩍 뛴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우리의 성적인 관습을 방해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하

나님이 우리에게 간음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싫다.”고 말했다.

요셉(이오시프) 스탈린은 전쟁 포로로 끌려온 1만 4700명의 폴란드 관리들을 처형하라고 명령했다. 그는 왜 제네바 협정은 무시하고 전쟁 포로를 처형했는가? 왜 히틀러가 최소 600만 명 이상을 죽였는가? 왜 캄보디아의 폴 포트는 캄보디아 전체 인구의 3분의 1을 죽였는가? 왜 호주 원주민들이 동물처럼 취급되고 살육당했는가?

킵 키클은 “하나님이 있었다면 지금 내가 느끼는 것처럼 느끼게 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나님은 없다. 증오만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킵 키클은 1998년에 학교 식당에서 반자동 소총을 50발 이상 난사해, 26명의 학생이 다치고 두 명은 사망했다. 이후 그 전날 살해한 그의 부모의 시신이 집에서 발견되었다. 만일 키클이 하나님이 있고, 그를 사랑하시며, 하나님이 그를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 그분의 말씀대로 해야 한다고 배웠더라면 그런 일은 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가



▲ 모든 도덕성을 제거하는 진화론을 가르치는 것은 영혼들을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게 하려는 사탄의 계획이다. 출처: pxhere

르치는 것이 이런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아닐까?

강력 범죄가 40~50년 전보다 100% 가까이 증가했다. 집의 대문을 잠그지 않아도 되었던 시절이 있었다. 1996년 이래로 지난 10년간 미국에서 29번의 학교 총기 사건이 있었다. 왜 아이들과 선생님들, 부모들은 학생들에게 살해당하는 것인가? 10명의 선생님들과 48명의 학생들이 죽었고, 7명의 선생님들과 107명의 학생들이 부상당

했다. 1999년 4월 딜런 클레볼드와 에릭 해리스는 콜롬비아 고등학교에서 총기 난사를 했다. 클레볼드의 아버지는 진화론을 믿는 지질학자였고, 이들은 나치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었다. 그들은 아돌프 히틀러를 기념하기 위해 고의로 히틀러의 생일날 총기를 난사했다. ‘자연 선택’이라는 글귀가 쓰여진 티셔츠를 입은 에릭은 이사를 흑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쫓다. 자연 선택, 이것은 진화론이 가르치는 것이다.

자연 선택은 ‘만일 강자가 살아남는다면 저 사람이 나보다 크니까 내가 총을 가져야 승산이 있다.’는 생각을 하게 한다. 교과서는 ‘너는 동물이고 지렁이와 같은 조상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 학교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은 아닐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요 8:32) 하나님과 사탄은 각각 계획이 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로 충만케 하고,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고 평화롭게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영혼들을 구원해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다. 그러나 사탄의 계획은 인구를 0으로 감소시키는 것이다. 사탄은 당신이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모르는 것을 배울 수 있다면 ‘비밀스런 지식’을 약속한다. 그는 진화론의 가르침을 사용해 사람들을 영원히 지옥으로 떨어지게 하려고 한다. 사탄은 인구를 감소시키기를 원한다. [GPNEWS]



선교 통신

## 안식교인과 무슬림과 불교신자와 함께 사는 삶



▲ 뉴질랜드 오클랜드 거리에서 예배하는 그리스도인들. 특정 기사와 관련없음. 출처: 유튜브 채널 Torch of Christ Ministries 캡처

5개월 전에 신청했던 자동차 부품이 이제야 도착했다. 부품가격도 만만찮는데 정비를 위한 인건비도 비싸다. 그런데 우리 집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는 잭(남, 필리핀)이 가까이 정비해 주겠다고 나섰다. 그는 지게차 정비사다. 고맙고도 미안했다. 10분 만에 끝났다. 엔진오일이 새는 것을 보고 그것도 고쳐 준다며, 20분도 안 되어 정비를 마쳤다. 그에게 한국 식당에서 제육볶음 하나를 시켜서 대접했다. 정비하는 동안 이야기를 나누었다. 본인이 크리스천이라기에 물어봤다. “요즘 예배는 어떻게 드리고 있어요?” 자기는 토요일이 안식일이

라서 알아서 드린다고 했다. 예전에 교회는 어디로 가느냐는 질문에 잘 대답을 안 했는데, 안식일 교회에 소속되어 있고 굉장히 오랫동안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해 왔음을 알게 되었다. 안식일 교회에서 진리를 알게 되었다고 한다.

이맘(남, 인도네시아)은 독실한 무슬림이다. 예전에 우리 모임에 한 번 가자고 했지만, 부담스러워하는 눈치였다. 최근 전구가 나가서 갈아달라고 요청해왔다. 신발을 신고 방에 들어갔더니 나에게 정중하게 신발을 벗어달라고 한다. “여기는 내가 하루에 다섯 번씩 기도하는 장소입니다.”

2층의 하상이(여, 스리랑카)는 독실한 불교신자로, 우리와 산지 벌써 3년이 넘었다. 방안에 향을 피우면 방문 앞에 향 냄새가 진동한다. 우리가 집에서 예배를 드리면 본인은 절에 한 번씩 갔다 오곤 한다.

그러고 보니 우리 집에는 이렇게 다양한 종교인들이 함께 어우러져 살고 있다.

엔진오일을 새는 것을 고치기 위해 뜨거운 열기로 인해 닳아버린 가스켓을 제거하고 새것으로 끼웠다. 이제 얼마 동안은 엔진오일이 새지 않겠지만 좀 지나면 다시 새어 나올 거라고 한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하는 신앙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구나 싶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진리다.” “내가 속해 있는 곳이 진리다.”라고 경쟁하며 경주하듯이 살아간다. 그러나 주께서 우리를 십자가 앞에 세우고 내가 가진 그 어떤 것도 진리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신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렘 2:13) 비교와 경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웅덩이가 진리를 담은 웅

덩이라며 자랑한다. 그러나 땅을 밟고 서 있는 사람들이 웅덩이를 파고 진리를 담으려고 하면 할수록 알게 되는 것은 진리가 아닌, 오히려 측량할 수 없는 죄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크기다. 진리를 추구하며 웅덩이를 파고 있지만, 그것이 죄로 말미암은 사망임을 스스로 알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문제다.

내가 만든 웅덩이에는 진리만 담겨 있다고 믿어왔던 사울의 웅덩이, 모든 사람이 그것이 진리가 맞다고 인정할 정도로 견고해 보이는 웅덩이였다. 그러나 예수와의 만남을 통해 진리를 담은 웅덩이가 아니라 죄를 진리인 양 채우고 예수를 핍박하고 있는 터져버린 웅덩이, 그런 나를 복음 앞에서 비로소 확인하게 되었다.

“나는 진리를 담은 웅덩이의 소유자가 아니라 진리를 담지 못한 터진 웅덩이 그 자체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여기저기 터져 있음을 알아가는 은혜로 가득 차 있다면 감사할 것밖에 없는 인생,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된다. 예수 그리스도, 그가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이다. [GPNEWS]

뉴질랜드=김세목 선교사

복음의 능력

### 회개한 사람만이 회개를 말할 수 있다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의 상태는 너무 끔찍하다. 그래서 ‘내가 사람들에게 그들이 거듭나지 못했음을 일깨워주기만 해도 내가 할 일의 절반은 이룬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을 해본다. 그러나 육체적 쾌락에 대한 사랑, 바쁘게 돌아가는 세상일, 그리고 세상의 정욕과 애착과 근심은 그들의 양심의 목소리를 잠재운다. 그렇기에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음을 일깨워주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그들이 얼마나 두렵고 비참한 상태에 있는지를 알려주어야 한다. 그러나 지옥 불에서 고통을 겪어본 부자와 같은 사람이 아니라면 누가 지옥에 떨어질 사람들의 비참함에 대해 제대로 말해 줄 수 있겠는가?(눅 16:24) 기억하라! 죄인들이 결코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만이 그들의 비참함을 정확히 말해줄 수 있다는 것이다. [GPNEWS]

돌이켜 회개하라  
(조셉 얼라인)에서 발췌

나눔&나눔 삶의 나눔으로 되새겨 보는 하나님의 은혜

# “한국교회,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에릭 폴리, 현숙 폴리 목사 부부(한국 순교자의소리)



© 복음기도신문

한국인보다 한국 초기 그리스도인을 잘 이해하고 있는 미국 목회자. 100년 전 한국에 복음이 전래되던 초기 성도들은 오직 성경을 통해 알게 된 하나님만을 믿었으며, 지금도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은 그 믿음으로 어려운 고난의 시간을 견디고 있다고 전하는 에릭 폴리 목사(한국 순교자의소리). 위기를 맞은 한국교회가 다시 그 성경의 복음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역설하는 폴리 목사를 만났다. 통역은 아내되는 현숙 폴리 순교자의소리 대표가 맡았다.

-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본 분은 아시겠지만, 목사님은 한국 초기 그리스도인의 신실한 믿음을 강조하며 오늘 한국의 성도들이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말씀을 통해 신선한 충격을 한국교회에 던져주셨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한국에 대한 이해함을 갖게 됐는지, 또 어떤 과정을 거쳐 지금 북한 선교의 최일선에 서게 되셨는지 듣고 싶습니다. 먼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셨기 때문에 그저 따라다녔을 뿐입니다. 종교는 제게 철학 같은 것이었지만 믿고 싶은 것은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무신론자는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의사였고, 어머니는 간호사로 두 분 모두 의료인이셨어요. 아버지는 어려운 책들을 많이 읽으시고 제게 철학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한 가지 종교를 믿는다는 것은 우스운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다 10대 때, 물문교회에 초대받았어요. 저는 모든 종교에 관심이 있었거든요. 그곳에서 제게 물문 경전을 주면서, 이것을 읽으면 하나님이 따뜻한 느낌을 줄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책을 읽어 내려가는데 터무니없는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문교는 엉터리고 말이 안 되는 종교란 생각이 들면서 반드시 진실된 종교는 존재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곳에서 나와 다음으로 간 곳이 감리교회였어요.”

## 진실된 종교를 찾은 조숙한 청소년

-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셨나요?  
“그건 아니에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 교회에서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기억에 하나 남는 건 성만찬이었어요. 제게 빵을 건네

주면서, 이것이 공산주의를 이기는 상징이라고 하는데, 제게 와닿지 않았어요. 당시에 저는 하나님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고 부모님에게 들은 것 정도뿐이었어요.”

그렇게 진리를 찾던 에릭은 청소년 때 이미 컴퓨터 회사를 운영하며, 다재다능한 능력을 발휘하기도 했다.

“저는 10대 때, 형과 컴퓨터 회사를 했어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또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컴퓨터를 가르치기도 했어요. 동시에 라디오 디제이도 했어요. 그리고 성적은 늘 ‘A’만 받는 모범생이었어요. 보기에는 다 잘해보였을 거예요. 그러나 뭐가 뭔지 모르는 상태였어요.”

그는 남들이 보기에는 유능했지만, 내면은 혼돈된 상태였다고 자신의 청소년기를 회상했다.

“돌아보면 주님의 인도하심이 놀라워요. 라디오에서 모닝쇼를 맡아서 진행하고 있었어요. 하루는 뉴스를 담당했던 사람이 주일에 교회에 가자고 했어요. 그래서 나도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따라갔어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면서요. 도착한 곳은 감리교회였어요. 빌 로저스라는 담임 목사님을 만났어요. 목사님이 저를 만나자마자 ‘진짜 잃어버린 양이 왔다’고 말씀하셨어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제가 사업도 잘하고, 라디오를 진행하는 유명인이고, 성공한 관장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목사님은 제가 잃어버린 양이라는 것을



▲ 탈북민들에게 한국의 기독교 역사에 관하여 가르치고 있는 에릭 폴리 목사와 현숙 폴리 대표. 출처: 한국 순교자의소리

알고 계셨어요. 목사님은 또 제가 잃은 양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사실도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제게 한 가지 미션을 맡기셨어요. 주말마다 아이들을 위해서 설교를 하라는 것이었어요. 제가 라디오 진행도 잘하고 창조적인 사람이어서 아이들에게

설교를 잘할 수 있을 것 같으면서요. 당연히 할 수 있다고 대답하고 목사님에게 설교할 내용들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때 기본적인 진리들을 가르쳐주셨어요. 저는 그때 창세기가 뭔지, 예수님이 뭔지, 부활이 뭔지 아무것도 몰랐으니까요. 목사님이 제가 자존심이 너무 세니까 이런 특별한 자리를 만들어야 저를 가르칠 수 있겠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 성경을 배우며 성경을 가르치다

- 빌 목사님의 안목이 탁월하시네요.

“그러던 어느 날, 감리교단에서 매년 열리는 콘퍼런스에 참석했어요. 2000명이 모인 집회에서 빌 킷이라는 분이 설교를 하다가 갑자기 ‘여기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목사의 부르심이 있습니다.’라고 말했어요. 당시 저는 목사가 될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제 의지와 상관없이 다리가 움직이면서 강대상 앞으로 걸어 나갔어요. 앞에 나가서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지?’ 생각을 했어요. 10여 명의 목사님이 안수를 해주려고 서 있는데, 앞에 나온 사람은 저 하나였죠. 목사님들에게 안수 기도를 받고는 목사가 되기로 했어요.”

- 은혜라고밖에는 달리 설명이 안 되는군요.

“이후 조금씩 기독교에 대해 배워갔어요. 맞아요. 주님을 알게 된 모든 이야기는 주님의 은혜예요. 제가 하려고 한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어떤 좋은 결정을 해서 이렇게 된

런스에 참여했어요. 당시에는 비행기를 몇 번 타 본적이 없었기 때문에 비행기 타는 재미를 기대하며 갔어요. 5000명이 참석하는 큰 대회였고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들이 말씀을 전했어요. 둘째 날 매우 유명한 분이 설교를 하다가 갑자기 멈추더니 저에게 일어나라고 하더군요.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복음의 새로운 일(new work of evangelism)을 할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5일 동안의 대회 기간에 제가 무슨 떠오르는 셋별인 줄 알고 사람들이 와서 인사하고 악수하고 연락처도 주고 받았어요. 마지막 날 또 유명한 분이 와서 설교를 하다가 또 저에게 일어나라고 하시더니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 복음의 새로운 일을 하실 거라고 말을 했어요.”

- 동일한 장소에서 두 번이나 같은 일이 일어나다니. 놀랍네요.

“집으로 돌아와 이 일을 보물처럼 마음에 간직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목사님이 인디애나에 있는 한 교회로 저를 보내셨어요. 거의 문을 닫기 직전의 교회였어요. 저에게는 교회를 섬기는 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교회에 도착해 성도들이 하나님에 대한 어떤 기대가 있는지 알고 싶어서 물어봤어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가 성장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에게 가까이 가고 싶다고 하더군요. 이후 이 교회가 지역에서 가장 빨리 성장하는 교회가 됐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빨리 성장할 수 있었던 전략이 뭐냐고 묻더군요. 다른 건 없었어요. 빌 목사님에게서 배웠던 기본에 충실했을 뿐이었어요. 복음이 뭔지, 신앙이 뭔지를 설교했어요.”

-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는 디모데전서 말씀이 생각나네요. 역시 복음이면 충분하죠.

“이후 감리교단에서 구성된 특별 위원회에 선정되었어요. 유명한 목사님들만 선정되는 위원회였어요. 회의 첫째 날 모임에 참석했는데, 마지막 회의 때 나와야 할 보고서를 벌써 만들어서 위원들에게 나눠주더군요. 어떻게 된 일이라고 물었는데, 이렇게 모여서 그냥 도장만 찍으면 된다고 하더군요. 겉보기에는 굉장하고 멋있어 보였는데 매우 실망했어요. 나중에 지역 책임자에게 연락해서 그 모임에서 빠지겠다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 그룹에 있으면 그 교단에서 미래가

보장된다며 그냥 있으라고 하더군요. 그때 많이 울었어요.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슬펐어요. 자세한 내용은 밝히지 않고 사임을 한 후 교단을 떠났어요. 그리고 교회를 비판하지 않기로도 결정했어요. 그래도 교회가 있기 때문에 제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후 두 가지를 결심했어요. 하나는 교회나 교단의 성장을 위해 헌신하는 것은 하지 않겠다는 것이에요. 또 하나는 제가 경험했던 것처럼 복음이 기본이 될 수 있도록 헌신을 하겠다는 것이죠. 나 같은 사람을 더 만들겠다는 거예요.”

-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결단을 하셨군요.

“사실은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 때문에 길어졌는데, 제게 언제 기독교인이 됐냐고 묻는다면, 이 결정을 한 날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전에는 그저 교회 사람이었어요. 교단을 떠났지만 교회와 함께 하는 사람이 되기로 결정하고 이후 빌 목사님이 안수 받았던 군소 교단에서 안수를 받았어요.”

- 그러면 다음 질문입니다. 순교자의소리(VOM)를 어떻게 만나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아내를 처음 만났습니다. 아내는 나를 좋아했지만 한국인이 아닌 사람과의 결혼에 대해 전혀 생각하지 않았고, 현실적이지 않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저는 나와 결혼을 한다고 해도 한국 사람이기를 포기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어요. 그 말을 행동으로 보여줬죠. 아내를 만난 날부터 한국에 관한 모든 것을 읽었어요. 한국 음식만 먹기 시작했고, 한국 음식이 맛있다는 것도 알게 됐어요. 그 어떤 것도 희생 같지 않았고, 배우는 게 훨씬 많았어요. 그러다 한국 기독교인 역사와 초기 기독교인들의 설교를 보게 됐고 매우 감동을 받았어요. 그런데 한국인인 아내가 미국에 있는 게 마치 나무가 다른 땅에 잘못 심겨져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아내가 똑똑하고 열정도 넘치는데 이곳에서는 소수민족이다 보니 사람들이 그런 아내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 현숙 폴리 대표님도 같은 생각이셨나요?

현숙 폴리(이하 현숙): “목사님은 본인 사역보다 제 사역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전 목사  
(6면에 계속)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 빛나는 믿음 (5)

# 예수를 바라보라!

성경은 '예수를 바라보라'고 말씀한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는 말은 '예수면 다다!'라는 말이다. 우리의 모든 사상과 민족과 국가의 미래도, 인류의 영원한 그 향방과 내 개인의 크고 작은 모든 일상도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시다. 그러므로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와 진리의 말씀, 이 두 가지 원리를 굳게 잡아야 한다. 결론을 알고 가는 사람은, 처음부터 모르는 상태에서 짐작해 가면서 결론에 도달해보려 하는 사람과는 하늘과 땅 차이이다. 퍼즐만 해도 퍼즐의 완성된 그림을 보고 맞추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정말 다르다. 정답을 알고 살아가는 인생과 정답을 모르고 결론이 안 난 채로 살아가는 인생은 하늘과 땅 차이라는 말이다.

성경도 마찬가지다. 이 성

경의 결론과 정답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안다면-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지만-정답을 알고 있으니, 방향이 그대로 꺾어 맞춰진다. 그 결과 강력하게 진리가 힘 있게 다가온다. '예수를 바라보라'는 것은 우리의 흐트러진 시선과, 주님으로 결론을 삼지 않는 태도가 있는지 돌아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라는 것이다.

성경에서 그림자와 모형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된 것을 알아듣지 못하는 유대인들에게 히브리서는 그 제사의 의미가 무엇인지, 제사에서 가장 중심이 무엇인지를 말해준다.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흠 없는 제물이 되셔서, 단번에 제사를 드리심으로 다시는 속죄하는 제사가 필요 없도록 다 이루셨다는 것이다.

신앙생활도 어떤 '모양'을

흉내 내고 따라하지만, 성경의 모든 핵심과 비밀은 골로새서 1장 25절 말씀처럼 우리 속에 계신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임마누엘이 되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는' 이 불가능한 일을 이루어 내신 십자가의 비밀이다. 결국 예수를 바라보라는 말은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백문일답이시며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모든 것에 해답이 되심을 믿는 것이다. 하나님의 의와 심판과 죄와 인생의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주님이 해답이 되셨음을 믿으라고 하는 것이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예수님이 해답이 되신 적이 얼마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답을 얻은 적이 몇 번이나 되는가? 아직 가보지 않은 천국 가는 확신을 얻었다고 하는 말은 누구나 할 수 있다. 주님과 함께 세례



일러스트=이예원

를 받고 거듭났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을 말하는지 알고 있는가? '나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이 말은 교리가 아니고 우리 생명이서 실체가 되어야 한다. 내 안에 일어난 가족의 문제라든지 지식의 문제라든지 어떤 문제이든 모든 문제의 해답이 예수 그리스도다.

언제 예수님이 말 그대로 나의 모든 삶에서 믿음의 주가 되었는가? 우리가 일생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모든 문제를 주님께 가지고 나와서 그분이 해결해 주실 것으로 믿고 의지하며 기도해서

응답받고 그 일이 해결되는 것을 경험해 보았냐는 것이다.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말은 그냥 쳐다보라는 말이 아니다. 모든 것을 예수님에게서 해답을 얻으라는 것이다. 예수를 바라보는데 어떻게 바라보는 것인가? "믿음의 주요"라고 말씀하신다. 믿음의 주님이시다. 예수님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내 삶의 모든 일에 대한 해답이 되시고 주인이 되신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결코 망

할 수가 없다. 이 모든 것이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손 안에 있고 그리스도 안에 모든 해답이 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 된다. 내 인생에 오직 바라볼 한 분, 믿을 한 분. 믿음의 주요 그 믿은 바를 부끄러움 당하게 아니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바로 그 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라. 그 주님이면 충분하다. "예수면 다다!" (2021년 1월) (계속)

[GNNEWS] 김용의 선교사 (순회선교사. LOG미션 대표)

## 복음기도동맹군 은혜 광고\*

**●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주님 따르기에 너무 부족해 보이지만 그래도 옷이라도 입고 싶어요! 작은 외마디라도 이 옷의 글귀처럼 살고 싶어요!

교회, 선교단체, 학교 등 단체티 주문, 제작 소량부터 대량까지 주문받습니다. 최소한의 마진은 적용합니다. ^^

**문의 및 상담 | 010-8766-9129**

하나님나라의 부흥과 선교완성을 위한  
문화 예술 선교 단

**Blue Fish Company**  
Stage & Film

문화·예술의 부흥을 꿈꾸는 기도모임  
매월 마지막주 목요일 수도권에서 모입니다.

**블루피쉬는**  
병에 담겨 있을 때는 평범한 물고기입니다.  
그러나 바닷물 속에서 햇빛을 받으면  
본래의 파란 빛을 발합니다.

**블루피쉬컴퍼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받아  
그 빛을 열방에 비추는 공동체입니다.**

- 열방과 다음세대에게 드라마로 복음전파.
- 문화예술인들에게 복음전파.

문화·예술의 부흥을 꿈꾸며 기도할 분을 기다립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엡 5:8)

**문의 | 010-3272-6251**

Interview <5면에 이어>

### 복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을 세우는 일에 헌신하다

남하고 결혼해서 내조를 잘해줘야 된다는 생각만 했어요. 결혼 전에 남편 집에 갔는데 냉장고에 아무것도 없이 열음만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남편에게 보낸 것은 이 사람의 육체적 건강과 중보기도로 보좌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패션 사업을 하면서 살림을 전혀 안 해봤기 때문에 결혼 이후에는 영상을 보면서 음식을 계속 배웠어요. 그런데도 목사님은 제가 잘못 심겨져 있다면서 한국으로 저를 보내야 한다고 이야기했어요. 저는 쓸데없는 소리라고 딱 잘라 말했죠. 어느 날 LA에서 열린 콘퍼런스에 참여했는데 예언을 하는 분이 저에게 대단한 사역을 할 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전 그때도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사명이라고 생각해서 새벽에 중보기도센터에 가서 기도만 했을 뿐 아무런 관심이 없었어요.”

- 두 분 모두 콘퍼런스를 통해 말씀을 들으셨군요.  
현숙: “목사님과 결혼하고 나서 목사 사모가 되니까 사람들이 와서 상담을 요청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사람들에게 상담을 해 줄 자격이 없다는 것이었죠. 어떻게 해야 하나 망설이다가, 대학원 들어가 상담을 배웠어요. 그리고 여러 과정을 거쳐 한국 순교자의소리 대표가 됐는데, 제가 또 자격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공부를 하게 해줘서 리더십 박사학위를 받게 됐고, 또 신학교에 가서 목사 안수도 받게 됐죠. 저는 이 분하고 결혼하고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하려고 학교를 가서 공부한 거였는데, 어찌다 보니 여러 학위들을 받게 됐어요.” [GNNEWS]

C.K.

<뒷 이야기는 인터넷 복음기도신문 (gnpnews.org)에서 이어집니다.>

\* 복음과 기도의 삶을 핵심가치로 삼고 그리스도의 군사답게 살기로 결단한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해 은혜로 게재되는 광고 지면입니다.



# “하나님이 사슴벌레를 죽게 하신 이유를 깨달았어요”

나는 이번 뉴스쿨(순회선교단에서 주관하는 다음세대 신앙 훈련학교. 편집자 주)에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정말 아멘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면서 “나는 정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구나.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진짜 살았구나. 옛 자아는 죽었고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구나.”를 깨달았기 때문이다.

죄에 대한 강의를 들으면서 바퀴벌레, 쥐, 뱀보다 더욱더 더러운 죄를 왜 좋아하는 걸까. 죽은 쥐는 정말 싫어하면서 훨씬 더러운 죄는 왜 좋아하는 걸까 하는 생각을 했다.

##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

존재적인 죄인이기에 죄를 좋아할 수밖에 없는 나.

십자가 사랑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만화나 영화에 나오는 영웅들은 적들을 죽이고 칼로 무찌르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우리를 위해 대

셔서 죄와 하나가 되어 있던 우리를 구원하시고 죄를 심판하셨다. 우리를 정말 사랑하셔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 만약에

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돌보셨다는 것을 깨달았다.

## 심판이 아닌 끝까지 돌보신 하나님의 사랑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얼마 전 하나님이 사슴벌레 암컷을 죽게 하신 이유가 말씀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만약 나에게 좋은 자동차와 돈이 아주 많더라도 예수님께 다 드릴 수 있는가 생각해 보았다. 성경에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생각되면서 주님께 다 드리는 것이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길이라는 것을 알았다.

내가 뉴스쿨을 하고 싶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입학금도 채워주셔서 인도해 주셨다. 다음에 또 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나를 또 불러주실 것이라고 생각한다. [GPNWS]

양승주(11)



일러스트=고은선

신 죽으셨다는 것을 생각했다. 또 그렇게 하신 이유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도 받게 되니까 예수님은 오히려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

내가 레고로 어떤 세상을 창조했는데, 레고 캐릭터가 내 말을 듣지 않고 내 말을 무시한다면 나는 다 쓸어버리고 다시 만들 것 같다. 그런데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심판하지 않

## 부흥을 위하여

# 탈북민 강제복송 반대 시위... 올림픽 기간에 뉴욕서 개최

한반도에서 가장 고통받는 이웃이 살고 있는 북한의 회북을 소망하며, 북한의 현실을 소개합니다. <편집자>

미국 내 탈북민단체인 '북한인권전선시협회'가 주최하는 중국 정부의 탈북민 강제 복송을 반대하는 시위가 중국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열리는 기간에 미국 뉴욕에서 열린다고 6일 자유아시아방송이 전했다.

6일 개최된 시위에 참여한 탈북민 출신인 이 단체의 구호인 회장은 지난

1999년 중국에서 강제복송 당한 적이 있다고 밝히면서, 코로나19 사태에도 중국 공안의 탈북민에 대한 감시와 수색, 체포 등은 지속되고 있고, 나날이 단속 정도가 심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구 회장은 그럼에도 북한 인권에 대한 관심은 점점 줄어들고, 국제사회의 이목이 베이징에 쏠리는 시기에 탈북민 강제복송 등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기 위해 이번 시위를 기획하게 됐다고 했

다. 그는 중국 내 탈북민들을 돕기 위해선 한국 정부가 탈북민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유엔 등 국제사회가 중국과 북한을 강력하게 압박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미국 정부의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에 대해 강력하게 지지한다고 했다.

이번 시위에 참가한 재미 한인 빅터 박 목사는 중국은 탈북민들이 강제복송 당할 경우 구금되거나 고문, 사형에 처할 위험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탈북민들을 강제로 북한으로 돌려보내고 있다며 이는 용납돼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올림픽은 중국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전 세계의 자유를 위한 것이다. 탈북민에게 자유를 주고, 다른 민족들을 박해하는 것들을 평화롭게 하도록 하는

것이 중국이 해야 할 진정한 올림픽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 北 주민, 보위부 위협으로 南 탈북민 가족 보내온 돈 거절

최근 남한에서 거주하는 탈북민 가족이 보내는 돈을 받았다가 발각돼 큰 곤욕을 치른 북한 주민이 돈을 받지 않겠다고 완강하게 거절하는 사례가 포착됐다고 데일리NK가 전했다.

매체 소식통은 “지난달 29일 회령시에 살고 있는 김 모(60대) 씨가 설을 맞아 남쪽에 있는 딸이 보낸 돈을 받지 않겠다고 거부했다.”면서 “송금브로커가 3번 찾아갔지만 끝내 돈을 받지 않았다.”고 전했다. 탈북한 딸의 아들(10세)을 키우고 있는 김 씨는 딸이 종종 보내는 돈으로 손



이 코너는 GPM(복음과기도미디어)이 운영하는 복음의 소리 316전화(1670-3160)의 다양한 상담사례를 요약, 소개합니다. 영혼의 목마름 가운데 마음을 나눠준 내담자들의 경험과 나눔이 동일한 어려움에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소망합니다. 귀한 통로 된 내담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편집자>

## 부활하신 예수님의 상처는 어떤 의미일까요?

성경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손과 발, 옆구리에 상처가 나 있는 상태로 제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이 상처의 흔적을 그대로 가지고 계신다면 우리도 부활했을 때 신체의 부자유함, 질병, 상처와 고통을 가진 채로 부활하게 될 것 같아서 두렵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을 비롯해 가까웠던 사람들 누구도 예수님을 곧바로 알아보지 못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죽은 이후에 천국에서 쉬고 있는 영혼과 음부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영혼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썩지 않는 완전한 몸으로 부활을 겪습니다. 생명의 부활을 입은 자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며 살아가게 되고, 심판의 부활을 입은 자는 썩지 않는 몸으로 지옥에서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성경은 죽음과 질병이 죄의 결과라고 선포합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 지으신 원래 세상에 이와 같은 왜곡과 어둠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창세 때 그 모습을 더욱 완전하게 완성하실 모습이 요한계시록 19~22장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의 상처는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눈앞에서 있는 그분이 3일 전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이시라고 알려주는 증표입니다. 죄와 사망을 이기신 예수님만 가지고 있는 증표, 훈장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한 증표인 성흔을 보고 우리의 부활이 불완전하다거나 여전히 질병과 고통이 이어지는 삶이라고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의 두려운 마음이 이 말씀으로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계 21:4) [GPNWS]

이번 시위는 오는 22일까지 평일에는 뉴욕 주재 중국총영사관 앞에서, 주말에는 타

## 北 주민, 보위부 위협으로 南 탈북민 가족 보내온 돈 거절

이름스퀘어 일대에서 오후 1시부터 매일 2시간씩 진행될 예정이다. [GPNWS]

거기서 잘 살면 우리는 바랄 것이 없다.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다시는 집에 사람을 보내지 말아 달라. 그것이 우리를 돕는 길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소식통은 “보위원들이 탈북 가족들에게 얼마나 겁을 줬으면 생활이 어려워져서도 돈을 안 받고 다시 가고 가라고 하겠는가.”라면서 “최근 들어 중국 휴대전화 소유자와 사용자를 무조건 교화소로 보낸다는 인민반 회의까지 수차례 진행되면서 더욱 공포에 떨고 있다.”고 설명했다. [GPNWS]



▲ 강제복송 위기 탈북민 구출 호소 기자회견 현장. 출처: 유튜브 채널 이대로는 안된다 캡처

뷰즈 인 아트  
Views in Art

로리 앤더슨의 <핸드폰 테이블>

#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 작품설명: 로리 앤더슨(Laurie Anderson), <핸드폰 테이블(Handphone Table)>, 1978년, 복합 매체, <https://vimeo.com/19207943> 에서 감상 가능

1960~80년대는 세계적으로 큰 변화가 있었던 시기이다.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포스트모더니즘 문화가 확산되었고, 예술에서도 새로운

도전이 잇따랐다. 가장 큰 변화라면 전자매체의 사용일 것이다. 이후에 이렇게 전자기기를 사용한 작품을 '미디어 아트'라고 불렀다. 초기 미

디어 아트 중, 로리 앤더슨의 <핸드폰 테이블>은 현대 미술사에서 꽤 유명한 작품이다. 일단 앤더슨의 작품은 사용 설명을 미리 듣지 못하

면, 진가를 알기 어렵다. 전시장에 덩그러니 놓인 빈 테이블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딱히 눈에 띄는 것도 없건만, 작가는 대체 무엇을 감상하고 느끼라고 하는 것일까? 이 질문은 앤더슨의 매뉴얼에 '순종'하기만 하면 바로 해결된다. 매뉴얼에는 관객이 테이블 앞에 앉아, 팔꿈치를 책상 위에 새겨진 작은 동그라미에 놓고, 손으로 귀를 감싸라고 되어 있다. 그대로만 하면 된다.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테이블 아래의 기계를 통해 분명 소리가 발생하고, 이 소리는 조용히 팔꿈치를 대고 앉은 '순종'의 관객에게 전달된다. 매뉴얼대로만 하면 누구든지 소리를 들을 수 있다.

반대로 내 요구와 주장을 부르짖기에만 치우친다면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가 어렵다. 뿐만 아니라, 감히 하나님을 내 뜻대로 조종하려는 교만에 처할 위험도 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많은 인물이

하나님의 음성을 직간접적으로 들었다. 특별한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이라는 자기 제한은 하나님과 나의 깊고 친밀한 교제를 가로막는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있었다면, 상호 소통의 대화와 교제는 자연스러운 것이다. 문제는 들을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점에 있다. 지레 불가능하다고 포기하거나, 몰라서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경우이다. 오랜 습관처럼 무미건조하게 읊었던 기도를 바꿀 때이다.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요구하거나 내 고집대로 하기를 그치자. 눈에 보이지 않아도 분명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작은 순종이 필요하다. 말씀을 읽고 조용히 주님께 초점을 집중하고, 들을 준비를 하는 것이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새해가 되기를. [GPNEWS]

이상윤 미술평론가

## ☞ 지면으로 보는 인터넷 복음기도신문

# 성적 자기결정권 강조하는 학생인권조례는 위험한 사회주의 청소년 성정치 운동

요즘 우리 사회에서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학생인권조례의 핵심 개념 중 한 가지는 성적 자기결정권이다. 성적 행위의 결정권을 아직 미성년인 청소년이 갖고 있다는 주장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다. 이 조례의 진원지는 20세기 독일 나치시대의 학생반항 운동이었던 반더포겔 운동과 독일 68운동과 같은 독일 좌우 낭만주의 성소수자 운동(동성애적 소아성에 운동)이다.

독일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일원인 발터 벤야민(1892~1940)은 바로 이 독일 낭만주의 학생운동권 출신으로 '학생 형이상학'을 제기하면서 공산주의-사회주의적 성교육인 '에로틱한 교육'을 주장했다. 벤야민의 학생운동에서 유래된 에로틱 성교육이 최근 대한민국에 뿌리내리려는 학생인권조례 배후 사상이다.

한길사에서 나온 '교육학의 거장들'이라는 책에 소개된 벤야민의 스승인 구스타프 뷔네켄(Gustav Wyneken, 1875~1964)이 바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주장하면서 동성애적 소아성에 운동을 전개했다. 독일 녹색당도 바로 성적 자기결정권에 기초해서 소아성애를 정당화했다.

또한 뷔네켄은 성적 자기결정권

을 핵심이념으로 하면서 학부모들의 교육권으로부터 어린 학생들을 이탈시키는 학생반항운동을 전개해, 당시에도 학부모들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았다.

### 독일의 성적 자기결정권, 당시 학부모의 거센 항의 받아

독일 교육개혁자 혹은 개혁교육의 아버지라 할 수 있는 뷔네켄은 벤야민의 스승으로서 플라톤의 '향연'에 등장하는 동성애적 소아성애(소년사랑, 남색)를 교육학적 원리로 주장한 삼승적인 소아성애자다. 최근 독일 교육계에서는 이러한 독일 교육혁명, 개혁교육, 진보교육, 교육개혁의 선구자들의 소아성애적 교육과 그 행위에 대한 비판이 거센 상황이다.

이러한 정상성에 도전하고 그것을 파계하고자 하는 독일 좌우 낭만주의 학생운동(혹은 청소년 반항 운동)이 청소년인권센터 등을 통해서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부추기는 배후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류의 청소년 인권운동은 보편주의적-자유주의적 인권운동이 아니라, 사회주의적 청소년 성정치 운동이다. 성해방을 주장한 빌헬름 라이히의 성혁명·성정치 운동은 성인들의 성

혁명 운동이 아니라, 바로 소아들과 청소년들의 성혁명 운동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소아성애자들 혹은 남색자들의 동지와 낙원으로 변해버린 독일 68 진보교육의 성지 오펜발트 술레는 3m 높이의 거대한 남근상을 교육상징으로 세웠던 학교다. 이러한 교육철학적 기원은 바로 뷔네켄과 같이 '플라톤적 에로스'를 교육학의 교육원리로 도입한 20세기 초의 독일 개혁교육이다. 물론 그 이전에 독일 낭만주의 전통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가기도 한다.

뷔네켄은 남색(pederasty)이라는 아동 성폭력으로 기소가 되었을 때에도 플라톤의 '향연'에 등장하는 남색을 인용하면서 자기를 변호했다고 한다. 벤야민도 당시 독일 학생운동(Jugendbewegung)과 반항운동이었던 반더포겔운동(Wandervogelbewegung)에 심취하고 큰 영향을 받아서 일종의 '학생 형이상학'을 전개한다. 20세기 초의 이러한 독일 특유의 학생운동과 반항운동은 독일 낭만주의 운동으로서 사회주의적, 영지주의적, 허무주의적 운동이었다.

벤야민도 초현실주의에 심취하고 이후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 이



▲ 부산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반대하는 시민들이 지난 1월 17일 부산시의회 앞에서 조례 제정 철회를 요구했다. 조례는 1월 20일 임시의회를 통해 심의 보류됐다. 출처: 유튜브 채널 자유정의TV 캡처

반계몽주의적인 반항적 학생운동은 또한 플라톤의 '향연'에 등장하는 남색 전통을 계승하는 성소수자 운동·동성애 운동·남색 운동이었다. 벤야민은 또 다른 남색가인 그 유명한 스테판 게오르게(1868~1933)에게도 큰 영향을 받는다. 제2의 영지주의 운동을 표방한 이 독일 낭만주의 운동에서 발견되는 그리스적 남색 운동은 독일 나치에게도 큰 영향을 준다.

낭만주의적 사회주의는 소아기적, 사춘기적 그리고 질풍노도적 반항감정이자 반항이데올로기로써 이제 철이 지난 사상이다. 자유주의, 개인주의 그리고 자본주의가 현실주의적 인류학에 기반한 보다 성숙한 성인들의 이념이다. [GPNEWS] 정일권 박사

### 구독신청 안내

구독부수는 최소 1명 이상에게 복음을 나누며 전하도록 2부, 20부, 100부 이상 신청받고 있습니다. 구독료는 받지 않습니다.

### 후원 안내

복음기도신문은 동역자들의 기도와 헌금으로 제작·배포되고 있습니다. 동역하실 분들은 아래 후원계좌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국민은행: 651001-01-343666 예금주: 복음과기도미디어

### 후원자 명단

2022. 1. 13 ~ 2. 7 (가나다 순)

#### 개인

강성민 강종채 권혜령 김다경 김사회 김선희 김수미 김숙자 김애심 김유남 김정희 김지영 김형숙 김혜신 노은옥 박경희 박민숙 송미희 안민자 오세주 우종찬 이상연 이영선 이영욱 이장원 이주선 이진희 정효신 조명숙 조광환 차익수 차인순 최점옥 최정숙 하은숙 무명

#### 교회 및 단체

강서침례교회 김화제일교회 목자교회 문광교회 반석중앙교회 새순교회 복음가득한교회 복음기도신학연구소 샘물교회 서현교회교정팀 시흥교회 신한테크 안양그루터기교회 열매교회 주나임교회 주만교회 참종양터교회 처음사랑교회 헤브론원형학교

"동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기사 제보·구독·헌금·동역 문의는 아래 전화나 이메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 070-5014-0406-8

E-mail: gnpnews@gnmedia.org (31952) 충남 서산시 운산면 원평3길 8 페이스북 www.facebook.com/gospelprayernews

발행인 겸 편집인:김강호, 인쇄인:장용호(주)아이피디. 2010년 12월 1일 등록번호 충남, 다01355.(격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